

王維의 家族愛 淺論

朴三洙*

◁ 목차 ▷

I. 序言	IV. 弟妹
II. 父親	V. 妻子
III. 母親	VI. 結語

I. 序言

인간 사회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간에 존재하는 애정보다 더 지극한 감정은 없을 것이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족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데, 우리는 온후한 심성을 타고난多情多感의 詩人으로 알려진¹⁾ 詩佛 왕유에게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실로 남다른 '가족애'를 발견하게 된다. 소위 가족애란 다름아닌 부모 자식간, 형제 자매간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감정을 이르며, 인간 사회가 곧 하나의 가족 내지 가정을 그 기본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데서 자고로 가족애의 의의와 가치는 끝없이 강조되어 왔다. 일찍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으로서 行身處世하는 방도로 仁道를 주창한 儒家에서 바로 그 인도의 근본으로 '孝悌'를 내세우는가 하면 또 인류는 물론 君子의 道까지도 모두 '夫婦'에서 비롯된다고 한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²⁾

* 울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 1) 清代 趙殿成은 일찍이 그의 《王右丞集箋注·序》에서 “若其詩之溫柔敦厚，獨有得于詩人性情之美，惜前人未有發明之者。”라고 함으로써 왕유 심성의 온유온후함이 그대로 그 詩作 전반에 투영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근년에 필자는 조진성이 주장한 바를 실제로 분석 정리하기 위한 시도로 줄고(王維詩의 溫厚之情 研究)(부산경남중국어문화회 《中國語文論集》 제9집)를 발표하였었는데, 당시 줄고에도 왕유의 가족애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다만 그것은 단 세 편의 시작품 분석을 위주로 한 극히 疏略한 눈술이었을 뿐이며, 이에 본고는 다시 왕유의 생애 사적 전반과 詩文 작품 전반을 통해 그의 가족애를 집중 분석코자 한다.
- 2) 《論語·學而》：“孝弟也者，其爲仁之本與！”程樹德 《論語集釋》(北京，中華書局，1990. 8. 제1판)(學而下)：“劉氏正義：‘今案夫婦爲人倫之始，故此文敘於事父母事君之前。’《中庸》：“君子之道，造端乎夫婦。”

II. 父 親

대개 歐陽修의 《新唐書·宰相世系表》에 따르면 왕유의 家系는 太原王氏의 한 갈래인 河東王氏로서 高祖 王儒賢은 趙州司馬를, 曾祖 王知節은 揚州司馬를 지낸 데다 祖父 王胄는 協律郎 벼슬을 하였으며, 아버지 王處廉은 또 汾州司馬를 역임하였는데, 아쉽게도 현존 문헌 자료의 부족으로 그들의 자세한 생애 사적은 알 길이 없다. 더욱이 왕유가 일생 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碑銘, 墓誌, 序文을 썼으면서도 자신의 先代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떠한 기술도 하지 않고 있으며, 그같은 양상은 그의 詩文 작품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특히 왕유가 자신의 아버지를 묘사한 어떠한 기록이나 작품도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 그가 아주 어린 나이에³⁾ 아버지를 여윈 나머지 先父에 대해 별달리 깊은 인상이나 짙은 감정을 갖지 못했던 게 아닌가 한다. 혹자는 왕유가 열 다섯 살 때 고향을 떠나 장안으로 가는 도중에 驪山을 지나며 지은 〈過秦皇墓〉詩에서 시인 왕유의 마음 한 구석에 선부를 그리는 哀悼之情이 자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⁴⁾ 물론 천하를 호령하며 불로 장생을 꿈꾸었던 진시황도 별 수없이 황량한 한 墓의 무덤으로 변해 있음을 목도하면서 유한한 인생의 덧없음을 절감하는 가운데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난 선부에 대한 사모와 추도의 정을 절로 불러 일으켰을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그 詩作 全篇의 내용에 비추볼 때 아무래도 건강 부회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바, 이는 어쩌면 왕유의 현존 작품 가운데 그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全無한 데서 비롯된 비약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III. 母 親

한편 왕유의 詩作 가운데 그 심후한 가족애를 다소나마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觀別者〉가 있다.

푸르디푸른 버드나무 우거진 길거리
그 위로 고향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

青青楊柳陌
陌上別離人

3) 대략 왕유의 나이 13세 이전일 것으로 추정된다. 拙稿 《王維詩 研究》(성균관대학 박사논문, 1995.2.) 제2장 제2절 참조.

4) 伊藤正文 원저/ 譚繼山 편역 《審美詩人王維傳記》(台北, 萬盛出版公司, 1984.3.) 37쪽 참조.

사랑하는 자식 연·조 땅으로 유랑 떠나고	愛子游燕趙
고당에는 늙으신 부모님만 남아 있다	高堂有老親
타향길 떠나지 않으려니 가족 부양 방도없고	不行無可養
떠나가자니 온갖 근심 새로이 이어나	行去百憂新
애절히, 남은 형제에게 부모님을 부탁하고	切切委兄弟
사방 이웃들께도 아쉬움의 이별을 고한다	依依向四鄰
도성 성문 밖의 장막 송별연 다 끝나고	都門帳飲畢
이제 여기서 육친과 이웃들을 떠나가는데	從此謝親賓
눈물을 뿌리며 앞서가는 길동무를 뒤쫓고	揮淚逐前侶
슬픔을 머금고 민길 떠나는 수레를 움직인다	含憤動征輪
수레 탄 동아리들 어느새 바라봐도 보이지 않고	車徒望不見
이따금 그 일행이 일으키는 길먼지만 보이는데	時見起行塵
나 또한 머물리 집을 떠난 지 오래인 탓에	余亦辭家久
이름 보노라니 흐르는 눈물 수건에 흥건하다	看之淚滿巾

본편은 왕유가 타향을 떠돌다 어떤 貧士가 궁핍한 살림에 쫓기다 못해 하는 수 없이 부모 형제를 떠나 유랑길에 오르는 가슴아픈 이별의 광경을 목격하고 내심에 이는 감회를 읊은 것이다. 작품 속의 주인공은 노부모를 비롯한 온가족의 호구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처없는 유랑길을 떠나는데, 그 와중에 새로이 이는 수많은 근심 가운데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부모님 걱정에 무거운 발걸이 더욱 무겁다. 그러나 온가족의 절박한 생계 문제는 그야말로 그 가족 모두로 하여금 가슴 저미는 골육 이산의 고통을 감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한 가정의 만아들로 태어나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일생을 살아야야 했던 왕유로서는 이렇듯 애틋한 가족애가 넘치는 이별의 정경을 바라보며 불현듯 밀려드는 고향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스러움에 하염없는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그는 필시 자신의 경우와 꽤나 흡사한 작중 인물의 처지에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며 한껏 슬픔에 젖어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왕유의,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형제에 대한 두터운 우애는 可謂 천성적이었다고 하겠는데,⁵⁾ 그는 일찍이 〈爲相國王公紫芝木瓜讚〉에서 다음과 같이 '孝悌'의 참뜻을 천명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孝悌之心이 지극하면 능히 신명에게 통하여 하늘은 그로 인해 和氣를 내리고 땅은 그로 인해 美物을 生長시키는데, 書冊을 펼쳐보면 그같은 현상을 발견하게 되며 또 그로부터 推論해 그 이치를 解得할 수가 있을 것이나니, 그것은 어찌서 그러한가? 사람의

5) 《新唐書·王維傳》：“王維，……資孝友。”

마음은 원기에서 근원하고 원기는 또 만물 창조에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니, 마음이 선하면 원기가 呼應하고 원기가 호응하면 또 그 物象이 아름다우므로 상서로운 기운을 새와 물고기를 통해 나타내거나 혹은 풀과 나무를 통해 발산함으로써 신명이 은연중에 禍福을 定함과 천지의 아름답고 성대한 會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孝悌之至, 通于神明, 天爲之降和, 地爲之嘉植, 發書占之, 推理可得. 何者? 人心本于元氣, 元氣被于造物, 心善者氣應, 氣應者物美, 故呈祥于魚鳥, 或發揮于草木, 示神明之陰陽, 與天地之嘉會.)

요컨대 효제란 至誠이 뒷받침되면서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실로 지극한 효제지심은 궁극적으로 신명을 감응시키고 천지를 감동시켜 세상 만사, 삼라 만상에 상서로움이 넘치는 가운데 조화롭고도 아름다운 세상을 창출해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니, 그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왕유가 진정한 아름답고 선량하며 진실한 천성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게 된다.

어린 나이에 이미 아버지를 사별한 왕유의 효심은 어쩔 수 없이 그 어머니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었다. 왕유의 어머니는 博陵의 명문 崔氏로 나중에 博陵縣君의 封號를 수여받았으며,⁶⁾ 삼십여 년간 北宗 禪學의 名僧 大照禪師를 師事한 독실한 불교도로서 늘 거친 배옷을 입고 蔬食을 하면서 불가의 계율을 엄수하고 좌선을 하며 즐겨 깊은 산림에 거처하는 가운데 일념으로 寂靜의 경지를 추구하였다.⁷⁾

왕유는 개인 사상면에서 유가적이던 초년을 지나 중년 이후에는 점차 불교로 경도되어 만년에 이르러서는 가일층 佛理 禪學에 心醉하게 된다. 그가 開元 27년에 지은 <大鷹福寺大德道光禪師塔銘>⁸⁾에서 “소인 왕유는 지난 10년간 스님의 자리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維十年座下, 俯伏受教)라고 한 것으로 보아 분명 개원 17년(729), 즉 그의 나이 서른 살⁹⁾ 때부터 이미 정식으로 佛門의 제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가 비로소 佛學에 마음을 두기 시작한 것은 또 그 이전이었을 것이다. 대개 나이 스물에 취한 것으로 생각되는 왕유의 字¹⁰⁾ ‘摩詰’이 바로 그의 이름 ‘維’와의 절묘한 연계를 고려해 석가여래와 같

6) 《新唐書·百官志》에 의하면 唐代 三品官 이상의 어머니나 부인에게는 ‘郡夫人’, 四品官의 어머니나 부인에게는 ‘郡君’, 五品官의 어머니나 부인에게는 ‘縣君’의 봉호를 각각 부여하였는데, 왕유의 어머니 崔씨가 崔씨가 ‘현군’ 칭호를 받은 것은 대개 왕유가 天寶 7년에 으뜸관인 庫部郎中에 올랐을 때의 일로 추정된다.

7) 王維 <請施莊爲寺表>: “臣亡母故博陵縣君崔氏, 師事大照禪師三十餘歲, 褐衣蔬食, 持戒安禪, 樂住山林, 志求寂靜.”

8) 陳鐵民 《王維集校注》(北京, 中華書局, 1997.8. 제1판) 본편 주석: “作于開元二十七年(七三九)五月之後.”

9) 왕유의 生卒年은 현재 異說이 상존하고 있는데, 본고는 張清華 《王維年譜》(上海, 學林出版社, 1988.9. 초판)의 武后 聖曆 3년(700) ~ 肅宗 上元 2년(761)의 실을 따랐다.

은 시대 옛 인도의 在家佛徒인 '維摩詰'居士의 일컬음에서 따온 것이라는 데서 또한 그의 불교적 색채를 감지하게 된다. 요컨대 당시 어머니 최씨를 받들어 모심에 지극히 효성스러운 것으로 널리 이름이 났던¹¹⁾ 왕유의 불교적 경향성 내지 신앙심은 곧 그가 어린 시절부터 시종 天倫的 孝愛心으로 받들어 모시고 종교적 존경심으로 우러러보았던 홀어머니의 권고와 영향이 상당한 작용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왕유는 대략 천보 3년(744)경에는 左補闕 벼슬에 있으면서 한편으론 藍田 終南山 韞谷에 이른바 '韞川莊' [韞川別業] 을 장만해 어머니께 參禪 修行과 寂靜 追求의 道場을 마련해 드림과 동시에 그 스스로는 어떻게든 奸相 李林甫 집정하의 고뇌에 찬 현실적 삶¹²⁾의 굴레를 벗어나고픈 욕망에 관직 생활의 여가나 휴가 때면 으레 찾아와 자연 정취에 젖으며 소요 자적하는 '避風港'으로 삼아 '半官半隱'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왕유의 나이 쉰 한 살이던 천보 9년 봄, 어머니 최씨는 마침내 세상을 떠났고, 왕유는 곧 망천장으로 돌아와 3년간의 居喪에 들어갔는데, 당시 그는 어머니를 여윈 데 대한 억누를 길 없는 슬픔과 고독감에 거의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아! 정다운 사람 잃고 내 아직 살아 있으며 / 이 고독하고 적막한 삶 애답기가 그지없어라"(嗟余未喪, 哀此孤生)¹³⁾라고 하며 괴로워하였다. 그는 《舊唐書·王維傳》에 의하면 "모친상을 당하여선 너무나 슬퍼한 나머지 몸이 장작개비같이 여위어 뼈만 앙상히 남아 거의 喪事를 치르지 못할 지경이었으며"(居母喪, 柴毀骨立, 殆不勝喪.) 《新唐書·王維傳》에 따르면 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극도로 슬퍼한 나머지 몸을 심하게 상해 자칫하면 회생하기 힘들 뻔하였다."(母喪, 毀幾不生)고 한다. 이로 보아 그 즈음 왕유는 분명 "아버님 안 계시니 무엇에 의지하고 / 어머니 안 계시니 무엇에 기대리? / 집을 나서면 가슴 가득 근심 걱정 / 집으로 들면 또 마음 붙일 데 하나 없네 / 아버지 날 낳으시고 / 어머니 날 기르실 제 / 어루만져 기르시고 / 감싸 키우시고 / 돌보시고 돌보시며 / 나고 들에 더욱 품어주셨나니 / 그 바다같은 은덕에 보답코자 하건만 / 하늘은 진정 무정도 하여라"(無父何情? 無母何恃? 出則銜恤, 入則靡至. 父兮生我, 母兮鞠我, 拊我畜我, 長我育我, 顧我復我, 出入腹我, 欲報之

10) 郭維森等主編《古代文化基礎》(長沙, 岳麓書社, 1995.8. 제1판) 77쪽-"我國古人有名有字, ……男子二十歲成人舉行冠禮(結髮加冠)時取字, 女子十五歲許嫁舉行笄禮(結髮加笄)時取字."

11) 《舊唐書·王維傳》:"(維)事母崔氏以孝聞."

12) 왕유의 고뇌에 찬 삶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줄고 《詩佛 王維의 苦惱 初探》(영남중국어문학회 《中國語文學》 제31집) 참조.

13) 王維〈酬諸公見過〉.

德, 昊天罔極!)¹⁴⁾라고 거듭 탄식하였을 것이다.

몇 년후 '효자' 왕유는 평생을 佛心으로 살다간 亡母를 기리고 또 그 명복을 빌며, 아울러 천자의 후덕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급기야 망천장을 報施하며 佛寺로 개조 해주기를 청원하였는데, 당시 그는 〈講施莊爲寺表〉를 지어 올려 이르기를,

신이 듣건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부모님은 한번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는 되돌아오시지 않으시니 어찌 그 끝없는 그리움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한껏 힘써 무언가를 함으로써 스스로 그 비통함을 덜어야 할 것인바, 佛家の 教義에 크게 공덕을 쌓고 널리 구천의 영령들을 구제하라고 하였사옵니다. (臣聞罔極之恩, 豈有能報? 終天不返, 何堪永思? 若要欲強有所爲, 自寬其痛, 釋教有崇樹功德, 弘濟幽冥.)

라고 서두를 꺼낸 후, 상술하였듯이 그 어머니 최씨의 생전의 독실한 불교도 형상¹⁵⁾을 설명한 다음, 다시 이어서 이르기를,

그리하여 신은 마침내 남전현에 山莊 一所를 마련하였었는데, 그곳의 초당과 정사, 죽림과 과원은 모두 신의 망모가 생전에 좌선을 하는 공간이 오가며 맴돌던 곳입니다. 신은 지난번 어머니 喪事를 당했을 때 곧 마음 먹기를 이 산장을 寺院으로 만들어서 길 이길이 망모를 기리고 그 명복을 빌었으면 하였으며, 그때는 비록 감히 그 뜻을 아뢰어 소청을 드리지 못하였습시다만 그 후 밤낮으로 늘 그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 왔사옵니다. (臣遂于藍田縣營山居一所, 草堂精舍, 竹林果園, 並是亡親宴坐之餘, 經行之所. 臣往丁凶喪, 當即發心, 願爲伽藍, 永劫追福, 比雖未敢陳請, 終日常積懇誠.)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안록산의 난 이후에 肅宗이 왕유 자신에게 베풀어준 特赦를 염두에 둔 성음을 거론하면서 차제에 "위로는 聖明하신 폐하의 두터운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인자하신 망모의 넘치는 사랑에 보답하고자"(上報聖恩, 下酬慈愛) 하는 간절한 마음에 망천장을 보시하하니 부디 윤택하여 주십사 하는 뜻을 아뢰었다.

왕유가 本表를 올린 것은 乾元 원년(758) 겨울로 보이며,¹⁶⁾ 그 후 망천장은 불사로 개조되어 淸源寺(일명 鹿原寺)로 명명되었고,¹⁷⁾ 왕유의 어머니 최씨가 그곳에 안장된 것은 물론, 훗날 왕유 자신도 죽어서 평소의 뜻에 따라 가족들에 의해 청원사

14) 《詩經·小雅·蓼莪》.

15) 앞 주7) 참조.

16) 陳鐵民: 앞의 책, 본편 주석: "約作于乾元元年冬."

17) 《長安志》: "淸源寺在藍田縣南鰲谷內, 唐王維母奉佛山居, 營草堂精舍, 維表乞施爲寺焉." (劉維謙 《王維評傳》, 台北, 正中書局, 1975.2, 台二版, 84쪽에서 재인용)

서쪽 어머니의 묘소 옆에 문힘으로써¹⁸⁾ 구천에서도 어머니를 가까이 모시며 모자가 더불어 수려한 鞞川의 山水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왕유의 지극한 효심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 물론 애써 성문에 보답코자 하는 충성스러움도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나, 그가 애초에 '施莊爲寺'를 청원하기로 결심한 것은 순전히 돌아가신 慈母를 위한 고려였음도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그 후 숙종에게 특사를 받는 크나큰 성문을 입으면서 왕유는 차제에 그 보답과 감사의 뜻을 첨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왕유 내심의 비중이 후자보다는 오히려 전자에 두어져 있음은 본표의 행간 구석구석에서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IV. 弟 妹

왕유는 남동생 네 명과 여동생이 있었는데, 첫째 동생 王縉은 代宗朝의 宰相(黃門侍郎同平章事)에까지 오른 인물이요, 둘째 王縉은 江陵少尹을 지냈고, 셋째 王紘은 그 出仕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적어도 일정한 재능과 신분을 겸비한 것으로 추정되며,¹⁹⁾ 막내 王紘은 太常少卿을 지냈다. 그리고 여동생은 몇 명이 있었는지²⁰⁾ 또 어떤 인물이었는지 미상이다. 이 여러 동생들에게 왕유는 한편 인정있고 우애넘치며 미더운 맏형이면서, 다른 한편 또 흔히 '長兄父母'라고 하듯 자상하면서도 간곡히 타이르고 선도한 부모였다.

우선 그의 〈偶然作〉 제3수를 절록해 보자.

밤낮으로 저만치 태행산이 바라다 보이건만	日夕見太行
사뭇 머뭇거리며 아작껏 떠나갈 수가 없었다	沉吟未能去
그대에게 묻노니 어찌하여 그렇단 말인가?	問君何以然
속세의 그물이 이몸을 휘감고 있는 탓이라오	世網縈我故
어린 누이는 나날이 성장해가고 있는데다	小妹日成長

- 18) 《陝西志》：“西安府藍田縣有王維母博陵縣君崔氏及維墓，俱在鹿原寺西。”(위와 같음)
- 19) 張清華 《詩佛王摩詰傳》(鄭州，河南人民出版社，1991.11. 제1판) 4-5쪽…“三弟王紘，原皆以爲其事迹無考，……他做未做過官，尚不清楚，不過至少他也是有些再揀和一定身分的。”
- 20) 《舊唐書·王縉傳》의 이른바 “又縱弟妹女尼等廣納財賄”에서 왕유에게 여동생이 있었음을 알 수는 있으나 그 숫자는 미상이다. 그런데 혹자는 왕유의 〈偶然作〉詩의 “小妹日成長”一句와 〈山中寄諸弟妹〉詩題를 근거로 그 여동생이 한 명이었다고 단정하고 있는데(張清華：앞의 책，p.6 참조)，詩句 語感上 물론 그렇같이 추정할 수는 있으나 결코 단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또 혹자는 〈別弟妹〉시의 “兩妹日成長” 일구에 근거해 왕유의 여동생이 두 명이었다고 하나(蕭麗華 《王維》，台北，幼獅文化公司，1991.1. 초판，7쪽 참조)，그 작품 자체가 이미 근년에 들어 왕유의 所作이 아닌 것으로 고증이 된 상태이므로(陳鐵民：앞의 책〈부록〉참조) 역시 성립될 수 없는 견해이다.

형제들은 또 아직 장가도 들지 못하였다네
 집은 가난한데 녹봉까지 변변치 않아
 평소 저축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몇 번이나 본연히 날아가려고 하였건만
 머뭇거리다 결국 또다시 가족들을 돌아보았다

兄弟未有娶
 家貧祿既薄
 儲蓄非有素
 幾回欲奮飛
 踟躕復相顧

본 편은 대략 왕유의 나이 스물 여덟 살 때의 작품으로, 당시 그는 시종 벼슬을 버리고 산림으로 歸隱하고픈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코 가족들을 위해 先父의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 장남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까지 팽개치면서 자기 자신의 안일과 즐거움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도 가족애로 가득찬 효성스런 아들이요, 다정한 형이었던 것이다. 나날이 커가는 어린 누이, 나이는 들었어도 아직 가정을 꾸리지 못한 동생들, 거기다가 또 아비없는 자식들 양육에 늘 마음 졸이시는 홀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왕유는 내심에 다소간의 모순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벼슬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넉넉치 못한 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애를 썼다. 그는 결국 자신이 마음속 깊이 동경하고 소망하는 바를 희생하였으니, 이 어찌 가족에 대한 두터운 사랑이 없이 가능한 일이었겠는가?

다시, 왕유가 열 일곱 살 어린 나이에 타향에서 고향의 형제들을 그리며 쓴 〈九月九日憶山東兄弟〉시를 보자.

이역 땅 타향에서 홀로
 나그네 되어 있으며
 매년 명절을 만날 때마다
 육친을 그리는 정이 倍加되나니
 아득히 멀리서나마 익히 알겠구나
 형제들 높은 산에 오른 그곳에
 모두 함께 수유가지 꽃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 빠져 있음

獨在異鄉爲異客
 每逢佳節倍思親
 遙知兄弟登高處
 遍插茱萸少一人

타향을 떠도는 나그네가 고향을 그리고 가족을 보고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으나, 무엇보다 타향에서 명절을 맞게 되면 그 鄉愁思親의 情은 진정 극에 달하게 되는바, 왕유는 높은 산에 올라 수유가지 꽃고 국화술 마시고 국화떡 먹는 풍속이 있는 구월 구일 重陽節을 맞아 자기만 빠지고 다른 모든 형제들이 다함께 즐기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내심에 이는 孤寂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애틋한 형제애의 소치임에 틀림이 없으니, 史傳에서 언필칭 효심과 우애를 들어 그를 칭송

한 것이 분명 허위가 아님을 알겠다.²¹⁾

이제 〈山中示弟〉시를 보자.

산중에 살며 나는 스스로를 망각함에 이르렀고 벼슬살이하며 너희는 훌륭한 재목이 되었구나 부디 해강의 나태함은 배우지 말 것이며 원현의 청빈함에 안주하여야 할 것이로다 이곳은 산뒷쪽이라 門이 거지만 北向이 맑은 샘물은 저만치 동쪽 이웃에 있단다 因緣의 和合으로 物象의 존재 허망되고 物性의 실체 공허하니 집착할 것 없도나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옛 仙人 광성자가 이 늙은이의 몸으로 化한 건지 아닌지를	山林吾喪我 冠帶爾成人 莫學嵇康懶 且安原憲貧 山陰多北戶 泉水在東隣 緣合妄相有 性空無所親 安知廣成子 不是老夫身
--	--

이는 확실히 동생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만형의 간곡한 충고요 당부이며, 이쁨이요 가르침이다. 왕유는 동생들이, 우주 만물은 오직 인연 화합의 결과로 나타난 허망한 존재요, 또 그 실체는 無常히 生滅 變化를 거듭하는 허상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부질없는 세속적 집착과 미련을 버리고 安貧樂道하면서 또 勤儉持身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가 〈山中寄諸弟妹〉시²²⁾에서 보여준 고고하고 탈속적인 형상은 어쩌면 바로 그러한 소망과 소신을 숭선수범하고 있음이라 할 것이다.

《舊唐書·王維傳》에 이르기를 “왕유와 그의 동생 왕진은 모두 출중한 재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이 넓고 예술에 두루 능통함에 있어서도 또한 그 명성을 나란히 하였으며, 집안에서는 또 서로간의 우애가 남달라 많은 선비들이 그들을 칭송하였다.”(與弟縉俱有俊才，博學多藝亦齊名，閨門友悌，多士推之。)고 하였듯이 왕유는 여러 동생들 가운데서도 특히 나이 차이가 가장 적고 才學까지 서로 비금비금했던 첫째 동생 왕진과의 우애가 참으로 각별하였다. 〈別弟縉後登青龍寺望藍田山〉시를 보자.

路上에서 새로이 그대와 이별할 제 아득히 사방 교외로 어둠이 깔리는데 높은 곳에 올라도 그대 보이지 않고	陌上新別離 蒼茫四郊晦 登高不見君
--	-------------------------

21) 《唐詩解》·“摩詰作此(즉, 본편 〈九月九日憶山東兄弟〉시를 가리킴), 時年十七, 詞義之美, 雖《陟岵》不能加. 史以孝友稱維, 不虛哉!”(陳伯海 주편 《唐詩彙評》,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1995.5. 제1판, 上, 351쪽에서 재인용)

22) 王維 〈山中寄諸弟妹〉: “山中多法侶, 禪誦自爲群, 城郭遙相望, 惟應見白雲.”

옛산 또한 구름 저너머로 가물거린다	故山復雲外
마나면 나무들 길떠나는 이를 가리고	遠樹蔽行人
길고긴 하늘은 가을 번새를 숨기나니	長天隱秋塞
벼슬살이 유랑가는 이를 진정 슬퍼하거늘	心悲宦游子
그대 어디메로 먼길 수레 날려 가느뇨?	何處飛征蓋

본편은 왕유가 일찍이 長安城 교외에서 환유길에 오르는 왕진을 송별한 다음 장안 남문 동쪽의 청룡사에 올라 멀리 남전산을 바라보며 지은 것이다. 정처없는 벼슬살이를 위해 부모 형제를 이별하는 동생을 떠나보낸 후 가슴 가득 밀려오는 석별의 정은 나그네를 앞질러, 아득히 구름너머로 가물거리는 먼산으로 달려가며 애를 태우고, 씩없이 멀어져가는 나그네를 찾는 안타까운 눈길은 또 무정한 나무들에 부딪쳐 조바심하는 가운데 시인 왕유는 사랑하는 동생의 遠行을 슬퍼하며 애절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왕유와 왕진 형제는 각기 詩와 文에 걸출한 재능을 보여 당시에 이미 “조정에는 좌상 왕진의 문장이요, 천하에는 우승 왕유의 시로다”(朝廷左相筆, 天下右丞詩)²³⁾라고 할 정도였는데, 두 사람은 형제로서는 물론 때로는 차라리 다정한 친구로서 서로 절차탁마하고 또 산수를 유람하고 시를 읊조리며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²⁴⁾ 북송 周敦頤의 偏愛主張²⁵⁾을 굳이 거론치 않더라도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유독 이름답듯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이야말로 더욱 그 광채를 발하는바, 왕유와 왕진의 형제에는 만년의 순탄치만은 않았던 인생 역정 속에서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하였다. 안사의 난의 와중에 어쩔 수 없이 반군의 僞職을 떠맡게 되었던 왕유는 결국 그로 인해, 훗날 단행된 利敵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논죄의 도마 위에 올라 극형을 면키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가 천만 다행으로 숙종의 특사를 받고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동생 왕진이 보여준 노력은 분명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이었다. 당시 왕진은 자신의 刑部侍郎 벼슬을 내놓으면서 형의 죄를 감면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왕진의 청원이 과연 왕유의 사면에 얼마만한 작용을 하였는가 하는 논의는 차치하고라도²⁶⁾ 자고이래로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크고 작은 이해 관계

23) <唐朝名畫錄>. (清·趙殿成 <王右丞集箋注> 〈부록1〉에서 재인용)

24) 伊藤正文 원저 / 譚繼山 편역 : 앞의 책, 193쪽. “王維和弟弟王縉及崔興宗·裴迪等, 形成一個親切的小團體, 而作為他們屏絕塵累的場所, 是在各自的山莊設立小天地, 在此尋求精神的安寧.”

25) 주둔이 <愛蓮說>: “予獨愛蓮之出於淤泥而不染, 濯清漣而不妖.” (金學主 <新完譯古文真寶後集>, 서울, 明文堂, 1991.4. 重版, 574쪽에서 봄)

26) 당시 왕유의 사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詩佛 王維의 苦惱 初探> (앞 주12에 보임)

로 서로 다투고 반복 질사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왕진이 동생으로서 기꺼이 자신의 부귀 공명을 포기하여서라도 곤경에 처한 형 왕유를 구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에서 곧 그들 사이에 넘치는 각별한 형제애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왕유는 國恩을 저버리고 반군을 따른 데 대한 논죄에서 천자의 특사로 면직된 후 망천에서 한거하다가 그 이듬해 太子仲尤으로 復官되었고, 上元 원년(760)에는 尙書右丞에까지 올랐는데, 당시 왕진은 멀리 蜀州刺史로 나가 있었다. 그런데 이는 왕유로 하여금 늘,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안타까움, 근심과 걱정의 나날을 보내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푸른 하늘을 오르는 것보다도 더 험난한 蜀道²⁷⁾만을 닳하며 부질없이 애만 태우고 있지 아니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숙종에게 〈 責躬薦弟表〉를 올려 자신의 관직을 삭탈하는 대신 동생 왕진을 朝臣으로 불러들여 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 表에서 왕유는 만약 조정에서 재능이 없는 자를 등용하면 재능 있는 賢者가 出仕하고자 하지 않고, 또 공훈이 없는 자를 상주면 공훈이 있는 충신이 표창을 받지 못하게 되며, 그것이 곧 立國의 원리요 爲政의 근본이라는 전체하에 忠·政·義·才·德 등 다섯 가지 방면에 있어 모두 자신이 왕진보다 못함을 주장함으로써 극력 薦弟한 다음 이어서 다시 이르기를,

신은 또 어느덧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 땅에 묻힐 날이 오늘 내일하옵나지만 늘 적막히 고독하고 길이 대를 이을 자손마저 없으며 동생 왕진만이 오직 신과 함께 서로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사운데, 형제 두 사람이 모두 백발이 성성하여 한번 헤어지고 나니 서로 유명을 달리 할까 두렵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제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죽는 순간까지 동생을 볼 수 있으니 분명 죽은 가운데에도 신의 혼백은 의지하는 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삼가 엎드려 비옵나니 신의 관직을 삭탈해 항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신의 동생에게는 閒職을 내리시어 그로 하여금 조정에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신은 응당 힘든 修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할 것이며, 동생 왕진은 당연히 誠心과 忠節을 다할 것입니다. (臣又逼近懸車, 朝暮入地, 闕然孤獨, 適無子孫, 弟之與臣, 更相爲命, 兩人又俱白首, 一別恐隔黃泉, 儻得同居, 相視而沒, 泯滅之際, 魂魄有依, 伏乞盡削臣官, 放歸田里, 賜弟散職, 令在朝廷, 臣當苦行齋心, 弟自竭誠盡節.)

라고 하였는데, 이렇듯 至誠과 眞情이 어린 왕유의 형제애는 마침내 천자를 감동시켜 상원 2년(761) 5월 4일 왕진은 門下省 소속의 左散騎常侍로 歸任하라는 조서가 내려졌고, 이에 왕유는 즉각 〈謝弟稱新授左散騎常侍狀〉을 올려 성언에 깊이 감사하였다.

참조.

27) 李白 〈蜀道難〉: “蜀道之難難於上青天.”

그러나 왕유는 그렇게도 그리던 동생 왕진이 미처 경성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문득 붓을 들어 마지막 고별사만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그 애통함을 어이 다 필설로 형용할 수 있었겠는가?

V. 妻 子

상술한 바와 같이 왕유는 한 사람의 자식이나 형으로서의 거의 더할 나위 없이 혼 혼한 정을 주고 받으며 살았다고 할 수 있으나, 애석하게도 한 사람의 남편이나 아버지로서는 못내 아쉬움을 남긴다. 왕유의 妻子에 대한 현존 기록은 특히 부족한데, 다만 兩《唐書》本傳에서 모두 그가 喪妻한 뒤에는 再娶하지 않고 삼십 년간을 홀로 살았다고 하고 있어²⁸⁾ 62세를 일기로 타계한 왕유가 대략 32세 경에 아내와 사별한 후 줄곧 독신으로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의 〈賁躬薦弟表〉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그는 대를 이을 자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⁹⁾ 그렇다면 그가 當時의 극히 보편적인 관례와는 달리 조강지처를 잃은 후 종신토록 홀로 살아간 까닭은 무엇인가? 대개 왕유의 奉佛心이 상치될 한 이후부터 더욱 독실해져 간 것³⁰⁾을 감안할 때 그것은 우선 왕유 본인의 종교적 主觀을 들 수 있겠으나, 다만 그 같은 배경의 주요 動因의 하나로서 우리는 무엇보다 亡妻에 대한 그의 애틋한 감정에 주목하게 된다.

왕유의 시문 작품 가운데 자신의 아내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는 〈偶然作〉 제4수의 “가족 생계엔 일찍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 아무래도 집안의 아내에겐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生事不曾問, 肯愧家中婦)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심히 겸양스러운 표현의 저변에 은근한 부부의 정이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왕유의 시 작품 가운데에는 일반적인 男女之情을 노래한 愛情·相思·閨怨·宮怨 등의 詩作이 또한 돋보이는데, 우리는 그 일련의 작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왕유가 추구하고 강조한 부부의 理想 形象은 결코 화려하고 풍요로운 물질 생활이 아닌 바로 진실하고 다정한 정신 생활에 그 중점이 두어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³¹⁾

28) 《舊唐書·王維傳》：“喪亡不再娶，三十年孤居一室，屏絕塵累。”《新唐書·王維傳》：“喪妻不娶，孤居三十年。”

29) 왕유의 〈鄭果州相遇〉詩에 “五馬驚窮巷，雙童逐老身”이라 하였고, 또 그의 친구 祖詠의 〈荅王維留宿〉시에 “升堂還駐馬，酌醴便呼兒”라 하고 있어 왕유도 원래는 아들이 있었으나 나중에 그만 요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른바 ‘童’과 ‘兒’가 반드시 왕유 소생의 아들을 가리킨다는 확증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30) 伊藤正文 원저 / 譚繼山 편역 : 앞의 책, 87-88쪽. “他(즉, 왕유)與佛教의 深切關係, 可從他的‘字摩詰’中得知, 但他對佛教所表示出來的關切, 卻是在經驗到挫折的濟州時代以後, 尤其是妻子死亡以後開始.”

VI. 結 語

왕유는 전통 관료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났으나, 아버지의 早期 他界로 家勢가 위축된 가운데 先父의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였다. 그는 비록 일생 동안 비교적 꾸준히 관직에 올라 있었으나 결코 그의 정치적 삶이 득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것은 그가 궁여지책으로 취한 '半官半隱'의 처세 태도에서 또한 충분히 간파되는 것이다.

친성적으로 다정 다감했던 왕유는 정치 사회적 失意로 인한 공허감을 대개 온후한 정감 생활을 통해 나름대로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 그의 진한 가족애는 바로 그 정감 생활의 원천이었다. 다만 소년기에 이미 아버지를 여윈데다 而立을 갓 넘긴 나이에 喪妻를 하고 더구나 대를 이을 자식조차 없는, 일견 그다지 행복할 것 같지 않은 가정 생활이었으나, 흔들리지 않는 平常心으로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동생들을 알뜰히 돌본 그의 삶은 진정 가족애의 한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요컨대 우리는 이를 통해 王維詩의 전반에 흐르는 溫厚之情의 원천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參考文獻】

《舊唐書》

《新唐書》

呂慧鵬 等 編 《中國歷代著名文學家評傳》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3.6. 제1판

喬象鍾 等 主編 《唐代文學史》 北경, 人民文學出版社, 1995.12. 제1판

宋·計有功 《唐詩紀事》 台北, 木鐸出版社, 1982.2. 초판

馮作民 譯 《唐代詩人列傳》 台北, 星光出版社, 1980.2. 초판

陳伯海 主編 《唐詩彙評》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1995.5. 제1판

清·趙殿成 《王右丞集箋注》 香港, 中華書局香港分局, 1975.2. 重印本

陳鐵民 《王維集校注》 北京, 中華書局, 1997.8. 제1판

《王維新論》 北경, 北京師範學院出版社, 1990.9. 제1판

劉維崇 《王維評傳》 台北, 正中書局, 1975.2. 台二版,

伊藤正文 원저 / 譚繼山 편역 《審美詩人王維傳記》 台北, 萬盛出版公司, 1984.3.

楊文雄 《詩佛王維研究》 台北, 文史哲出版社, 1988.2. 초판

盧 渝 《王維傳》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989.9. 제1판

31) 참고 <王維詩의 溫厚之情 研究>(앞 주1에 보임) 참조.

- 蕭麗華 <王維> 台北, 幼獅文化公司, 1991.1. 초판,
張濟華 <詩佛王摩詰傳>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91.11. 제1판
拙稿 <王維詩 研究> 성균관대학 박사논문, 1995.2.
<王維詩의 溫厚之情 研究> : 부산경남중국어문학회 <中國語文論集> 제9집
<詩佛 王維의 苦惱 初探> : 영남중국어문학회 <中國語文學> 제31집

【中文提要】

王維是傳統官僚門第的長子，由于父親早死，他則在家境轉壞之下不得不代父負起養家的重擔。他一生雖長期仕宦，但其政治生活并不得意，這可以從他采取半官半隱的處世態度窺見一斑。

王維是多情善感之人，因而他得以通過溫厚的情感生活補償其來自政治社會上失意的空虛感，他的深厚親情乃是其情感生活的源泉。不過，他不只早失父親，而且既在剛過而立之年時又不幸喪妻，亦“迥無子孫”(王維《責躬薦弟表》)，家庭生活中似難有幸福之感，但他却堅持以“平常心”竭盡誠意侍奉寡母關照弟妹。史傳亦稱王維“資孝友”(《新唐書》本傳)，如其母篤信佛教，他則購置輞川別業，供其修行。母親逝世，王維“居母喪，柴毀骨立，殆不勝喪”(《舊唐書》本傳)。晚年大弟王縉在蜀州任職，王維深願盡削己官，懇請肅宗讓其弟歸還京師。此等誠承所謂親情的典型表現。由此可見其流動于王維全詩中的溫厚之情。